

일에 대한 댓가는 정직하게 찾아와요

천봉부화장

안 계 생 편



올해들어 아마도 가장 좋은 날씨였을꺼다.

맑게개인 고속도로를 지루한 느낌이 안들 만큼 달려 대전에 도착하니 정돈된 거리의 화단에 노란 팬지꽃이 활짝 피어있어 봄이 우리보다 먼저 도착했나보다하며 웃었다.

목적지인 천봉에 들르기전에 만난 대전의 몇몇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안계생씨에 대한 사전지식(?)을 입수해 보았다
여장부—

여걸—

그녀는 그렇게 호칭되고 있었다.

전화로 들었던 음성도 칼칼하여 우리는 그녀의 그야말로 여걸다운 모습을 기대하며 천봉에 도착했다.

대전시가를 한참 벗어난 정립동에 위치하고 있는 천봉은 자그마하나 제법 나무

가 많은 산아래 깨끗한 느낌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농장앞엔 황금색 포니자동차가 있고 그뒤의 수돗가에서 물을 받고있던 처녀가 의아한 눈길로 바라본다.

“아주머니 계세요?”

대답이 없다.

“안사장님 계세요?”

그게야 제대로 호칭이 나온듯 싶다.

수돗가의 처녀가 쭈르르 부화실 이라고 써 붙인 건물로 들어가자 곧 안계생(安季生)씨가 나온다.

우리는 무의식중에 다시한번 부화실속으로 눈이 잘 만큼 그녀는 우리의 예상과 빗나간 인상을 하고 있었다.

하얀 피부와 곱게 손질한 머리. 가는데의 안경. 분홍 부라우스의 화사한 모습... 검고 거친 체격 큰 시골 여장부를 생각했던 우리가 어떻게 쉽게 그녀의 인상을 받

아들이겠는가. 도시에서 꿈계 자라 편안하게 살아온 여학교 선생님 타입이라고 보아야 적격일듯 싶은데 손을 보니 분명 사료번지와 닭똥에 찌들린 손이다.

하도 손이 더러워 반지하나 껌다며 내보이는 손마디가 딱딱한 것을 보니, 비록 자가용을 타고 다녀도 일에는 몸을 아끼지 않는 시골아낙네임에는 틀림없다.

찾아온 목적을 대충 설명하자 “아이구 창피하게……”하며 극구 사양하는 겸양지덕(謙讓之德)이 安氏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듯 하다.

양계업계선 드물게 우먼파워로 등장한 안계생씨는 충북 괴산이 고향이고 스무살에 시집와 부군 연창섭씨의 사업뒷받침을 해오다 5.16이듬해부터 부군이 양계를 시작하자 곁에서 내조한것이 양계와 인연을 맺게된 연유라 설명하며 육계 1,000 수를 아무 경험도 없이 시작해 정말 소매끝이 닳도록 두분이 일을 했다고 Mg, 뉴캐슬로

닭을 파문던 기억들을 악몽처럼 들추면서 몇번이고 양계란 무척 어렵고 고생스러운 직업임을 되풀이하러 얘기한다.

“일을 안하는 남자나 여자들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찾기만 하면 온천지가 일인데……”

일에 대한 댓가는 항상 정직하다고 믿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았다는 氏는 여느 여자들보다는 조금은 기구한 운명이었던다.

“아빠가 돌아가신지 6년째 되었습니다 조금 살만하게 되었을때 남의일 봐주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지요. 생전에 그렇게 말이 없고 일에만 몰두한 양반이……. 아빠가 가신뒤 몸뚱아리는 헤메고 다녔지만 내 정신이 아니였지요. 자식이 여섯에 조카가 넷 딸린 식솔만 열명이 넘었으니 생각할 수록 기가막혔지요”

주위에선 과연 천봉부화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꽤 관심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가 보다.



여느 중년의 女人들 보다는 더 깊은 고독속에 사는 안계생씨는 억척스레 일함으로써 누구보다 강하게 산다.
그래서 그녀는 가정에서子女들에게 둘러쌓여 있을 때, 첫손자를 안고 있을 때 더 활짝 웃을 수 있다.

아마도 천봉부화장에선 더이상 병아리가 못나오고 종계는 굼어 죽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들도 있었으리라. 그로부터 6년.

근처 신도안에 5,000평의 땅을 마련 종계사를 신축중이고 마스타피스 4대가 돌아 짬짬한 규모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해 놓았다. 부군이 살아계실때 열심히 돕고 함께 일하며 터득해 놓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어 오늘까지 끌어올 수 있었다는 氏는 천봉부화장의 병아리가 상품이 좋다는 평판에 대해, 이는 부화장 책임자인 송진호씨의 부화기술 때문이라며 공을 돌린다.

현재 천봉부화장에 종업원이 9명으로 조금 특색이 있는것은 이들에게 월급을 적금으로 붓도록 해 천봉의 문을 나설때 반드시 무엇이든 손에 쥐고 나가게 한다며 조그만 잘못은 관대히 용서하며, 세심히 관찰하여 이해와 사랑으로 대해주면 종업원들 문제는 과히 어렵지 않다고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히며 여주인으로서 섬세함과 엄격함을 보여준다.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여사장이란 선입관에서 부터 느꼈던 여장부적 기질보다는 차라리 전형적인 현모양처 형의 깊이를 느낄수 있었다. 氏의 이야기는 토틀 우먼의 이론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무작정 여성해방을 논하는 우먼리브와는 거리가 멀다.

“아무리 점심때라도 찬밥이 밥상에 오르면 큰일 나는줄 알고 늘 새로지어 올렸지요”

앨범을 꺼내 부군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펼치며 부군에 대한 회상으로 잠시 숙연해 지는 모습에선 생전의 지극했던 부덕(婦德)이 엿보여 가슴이 뭉클했다.

氏는 농장일 뿐만 아니라 새마을 운동의 일익도 담당해 72년도엔 새마을지도자상을 받았고 근처의 새마을 양묘장을 마련 10만 그루의 묘목도 심었다.

현재 공화당 대전지부 정립동 부녀차장직을 맡고 있는데 아무리 여장부라고 불리



氏의 이야기는 차라리 전형적인 현모양처를 느끼게 하는 토틀우먼의 이론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무작정 여성해방을 논하는 우먼리브와는 거리가 멀다.

위도 고충은 많다.

즉 사회의 인식과의 대결이다.

여자인 주제에..... 여자니까.....

흔히들 우선 알잡아 보고 드는 세태가 도시 못마땅한거다.

그러나 결코 여자라는 위치가 가장 본질적인 핸디캡이 될수는 없다.

살펴보면 많은 여성들이 남자들과 나란히 각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아직도 유교 가르침의 테두리 속 여자경시란 사회적 관념속에선 여자가 좀 그럴듯한 위치를 차지하면 우선은 시니컬한 반응부터 보인다.

사소한 대화나 거래에서 안계생씨는 여자이기에 심심찮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알파한 모멸과 곤욕을 치룬적이 많았던 것 같다.

양계업계에서도 우수한 고등 감별사 중엔 몇몇 여자감별사들이 당당하게 포함되어 있다. 여자를 안방에만 감금한 유교 오백년의 시절은 지났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란 속담이 이제는 낯간지럽다. 남편이 하는 일에서 한걸음 물러 앉아 명청히 구경만하고 있었던 안계생씨라면 월간양계의 지면이 결코 氏를 위해 할당되지 않았으리라.

현재 딸은 출가시켜 손주를 보았고 셋이 대학에 재학중이고 밑으로도 교육시킬 자식들이 많아 안계생씨의 어깨는 아직도 무겁단다.

자식들을 다 기르신후 훗날여생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를 질문하니 평소에 불교를 믿고있어 훗날엔 조금만 절이나 마련 마음을 닦으며 지내고 싶으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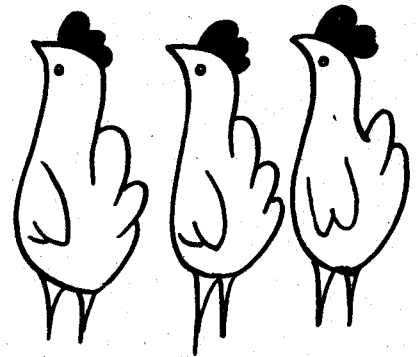
가능하다면 없는사람을 위해서도 살고 싶다며 “난 성질이 유난해서 동냥오면 밥이라도 꼭꼭 눌러줘야 속이 편해져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업신여기고 외면한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요”

한사람에 대한 가치를 평할때 흔히들 외면적인 업적이나 사회적 지위를 들추어 규정지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단편적인 측면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내면세계 즉 삶에 대한 태도의 성실도다.

안계생씨에 대한 탐방은 천봉 부화장이 어떠한 곳이고 얼마큼 성공했느냐 하는 것보다 안계생씨 개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보자는 것이 본 취지였고, 짧은 시간이지만 안계생씨로부터 받은 느낌은 뚜렷한 신념과 의지로 살고있는 여느 못남자보다도 믿음직스럽고 귀감이 될만한 양계업계의 유일한 여성이라는 것이다.

대전역까지 배웅을 나오신 안계생씨와 헤어져 서울로 오는 막기차를 타며, 우리는 늘 일로인해 토요일 오후를 잃어버려 왔으나 오늘만은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의견을 모았었다. (윤 경숙)

○
○
**금성부화장은
양계인에게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한협 603

필취

금성부화장

안 병 진

안양시 안양 6동 437-1

☎ (안양) 3757, 7888